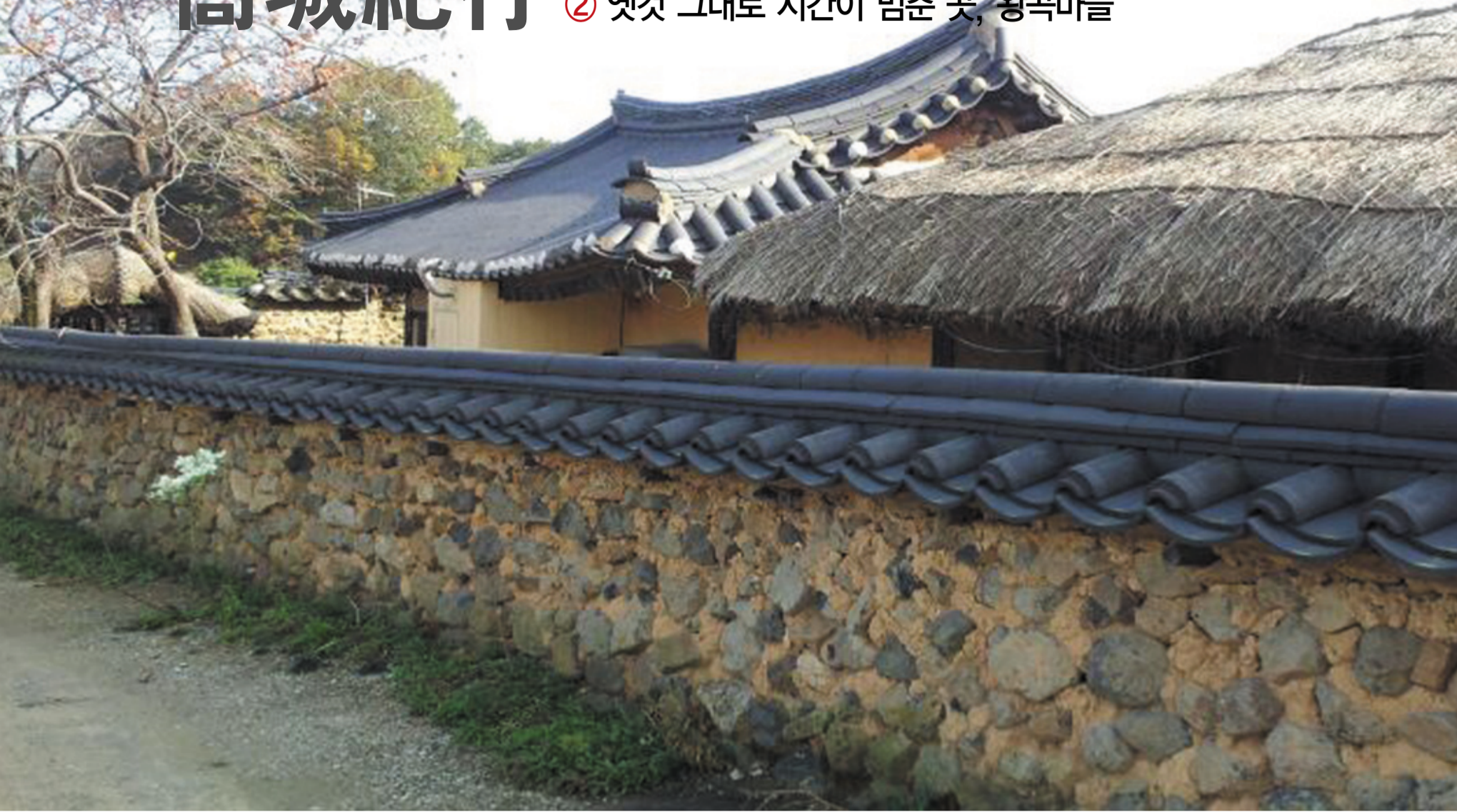


# 高城紀行 ② 옛것 그대로 시간이 멈춘 곳, 왕곡마을



## 옛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기억재(가)형 북방가옥 밀집 · 보존 ... 한국전쟁 · 새마을운동 · 고성산불 견뎌내

결실의 계절 가을, 그 끝자락에 서면 문득 그리워진다.

뒷동산에 올라 친구들과 뛰놀던 기억, 개울에서 미꾸라지를 잡아 거머리에 물렸던 기억. 추수가 끝난 들녘에서 메뚜기를 잡아 구어 먹던 기억. 어느 새 날은 저물어 마을의 굴뚝마다 흰 연기가 솟아오르면, 어디선가 밥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 화로에 둘러앉아 감자와 고구마를 구워먹을 때, 어머니는 식구들의 옷을 꿰매고 아버지는 사랑방에서 새끼를 낚다. 그렇게 밤은 깊어가고, 꾸벅꾸벅 졸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랫목에 누워 있는 나를 발견하곤 의아해 한다. 방문을 열면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침밥을 짓고, 아버지는 새벽부터 끓인 여물을 소에게 먹이며 환하게 웃는다.

이 가을, 문득 떠오르는 과거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을 따라 '옛것 그대로 시간이 멈춘 곳', 왕곡마을로 떠나보자.

수호신처럼 우뚝 서 있어, 범상치 않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오른쪽으로는 왕곡마을 주산인 두백산으로 오르는 등산로가 있다. 이선국 전 죽왕면장 때 개설한 것으로, 정상에 오르면 마을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동쪽으로 에메랄드빛 동해바다와 해안단의 절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장관을 볼 수 있다. 길이가 2.2km 가량되며 소요시간이 1시간 가량 걸린다.

마을 입구 왼쪽에는 동학사적 기념비가 있다. 동학 2대 교주인 최시형이 마을에 머물며 포교활동을 했으며, 1894년 동학혁명 기간 동안에는 동학군이 마을에서 전력을 재정비하는 등의 활동을 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지난 1997년 6월 천도교에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다.

### 강릉 최씨 · 양근 함씨 집성촌

마을입구에서 오른쪽 길을 따라 약 100m를 가면 두 개의 길이 나온다. 왼쪽은 주로 강릉 최씨들이 집성촌을 이루며 거주하고, 오른쪽은 양근 함씨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향토사학자 김광섭 씨에 따르면 왼쪽 최씨 집성촌이 과거 왕곡리, 오른쪽 함씨 집성촌이 금성리다. 지금은 이들 두 개의 마을을 합쳐 왕곡마을이라고 부른다. 행정명으로는 고성군 죽왕면 오봉1리다.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1시 방향에 사단법인 고성왕곡마을보존회 사무실이 있다. 본격적인 탐방에 나서기 전에 왕곡마을보존회에 들러 기본적인 정보를 얻고 가는 게 좋다. 일부 가옥들은 보존을 위해 자물쇠로 잠궜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모습을 살피기 위해서는 보존회에 부탁해야 된다.

왕곡마을은 19세기 민가와 북방식 전통가옥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지난 2000년 1월 국가 중요민속자료 제 235호로 지정됐다. 이처럼 왕곡마을이 전통가옥을 잘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3대 약재'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6.25 한국전쟁 당시 포탄이 떨어지지 않았으며, 새마을운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으며, 단군 이래 최대 규모였다는 1996년 고성산불에서도 살아남았다.

최종복 왕곡마을보존회 사무국장은



왕곡마을 입구에는 수령 150년이 넘는 소나무 1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며 마을 수호신처럼 우뚝 서 있어, 이 마을이 범상치 않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 취재 · 사진 : 최광호 기자

왕곡마을 여행의 진정한 맛을 알기 위해서는 '쫄' 겠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좋다. 승용차를 타고 왔다면, 마을 초입인 공현진교 근처에 차량을 세우고 마을까지 걸어가는 게 좋다. 그것이 이 마을을 방문하는 예의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래야 여행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약 10여분을 걸으면 마을 입구가 나타난다. 수령 150년이 넘는 소나무 10여그루가 군락을 이루며 마을